농업회사법인 한두레농산㈜이 3일 광주시 수완택지개발지구에 문을 여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수완지구 대규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오픈

싱싱한 농산물 싸게 먹을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광주에 들어선다. 이에 따라 기존 유통 단계를 거칠 때보다 평균 20% 정도 낮은 가격에 농·축산품이 판매될 것으로 보여 농산물 유통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농업회사법인 '한두레농산'

세척·살균·포장 일괄 처리

생산자 - 소비자 직접 연결

기존 제품보다 20%나 저렴

농업회사법인 한두레농산㈜이 3일 전남지역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수완택지개발지구에 문을 연다.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150억원이 투입됐으며,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다.

산지유통센터는 ▲집하장(277㎡) ▲선별실(원출분리실 268㎡) ▲세척실(221㎡) ▲전처리실(245㎡) ▲절단 포장실(418㎡) ▲저온저장고(1천60㎡)를 갖추고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게 된다.

한두레농산 산지유통센터의 최대 장점은 '착한 가격'. 유통센터를 활용하면 농산물이 산지에서 수집상과 농산물 경매를 거쳐 다시 중간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넘어가는 중간 유통과정이 모두 사라지게 돼 기존 단계를 거칠 때보다 평균 20% 정도 낮은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전남지역 시·군의 우수 친환경 상품을 중간 단계 없이 산지에서 직접 매입, 유통센터에서 세척·살균·포장 등 가공한 뒤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유통 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12시간 정도 단축, 품질도 뛰어나다는 것이 한두레농산측 설명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 하는 소비자와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생산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 하면서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농·축산업 육성 및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유통센터는 특히 고품질과 신선도 유지에 승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 내에 전처리실을 비롯, 세척·살균·저온저장창고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한두레농산은 초기 엽채류·쌈채류·특수야채를 비롯, 무·당근·감자 등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다양화하는 한편 향후 학교·산업단지·기업 등 대량 소비처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일반 요식업소에도 점차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유통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전체 면적 8천874㎡) 규모로 유통센터를 비롯한 농·축산물 전문직판장과 한우 전문식당이 들어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월 위기설' 가시화 되나

美 씨티그룹 국유화·단기외채 급증 … 금융시장 요동

3월 시작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2일 원·달러 환율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지수도 급락해 1,000선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외화 차입 만기가 이달에 몰려 있고 경기 불황이 짙어지는 가운데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회수를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기 전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 주 요인은 미국의 경기지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가 약화된데다 미국 씨티그룹의 국유화 소식까지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씨티그룹의 국유화, 동유럽 경제위기 가속 등 전세계 금융시장의 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이 씨티그룹의 국유화 이후 다른 은행들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면 전 세계에서 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스피지수 1,000선 붕괴와 지난해 9월 전 저점인 946.45 지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000선 붕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전 저점 붕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1천600원선 돌파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 등으로 조만간 하락 반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광기술원 기술 이전 본격화

광주 광산업 경쟁력 확보·세계시장 선점 청신호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제품의 국가 표준 규격 제정을 주도한 한국광기술원의 기술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광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시장 선점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광기술원은 2일 "고휘도 실리콘 기판을 기반으로 한 갈륨나이트라이드계 청색 LED(GaN/Si 청색LED)와 초고출력 380㎚ 파장을 내는 자외선 LED(380㎚ UV LED)를 처음으로 개발해 올해부터 기술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기술원은 또 최근 기존 반도체 LED 칩 생산 과정에서 금과 같은 소재로 머리털보다 가느다란 와이어를 원하는 부분에 접촉시켜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와이어본딩'을 생략할 수 있는 '웨이퍼 레벨 칩 패키징공법(WLP)'을 세계 최초로 개발, 공정 원가를 30% 이상 절감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2년 동안 ▲이동전화 카메라용 LED 플래쉬 모듈 ▲자동차 LED 전조등 방열 시스템 설계 기술 ▲색온도 제어 가능한 엘리베이터용 LED 조명기기 ▲형광램프 대체용 LED 램프 등 7가지 기술을 이전, 30건에 달하는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등 지역 광산업 기술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이 LED 제품의 한국산업규격(KS) 인증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광주 광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광주시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 2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한국광기술원에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LED조명실증센터를 설립하는 등 광주를 LED 생산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토요일 오후 2시까지 환승론 신청 하세요"

자산관리公

'토요일에도 환승론 신청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지사는 2일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환승론)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토요일에도 오후 2시까지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신청 자격을 대출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뒤 지난 1월 60여명 수준이던 신청자수가 지난달에는 206명에 달하는 등 100명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환승론은 3천만원 이하 금액을 연 3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등급(7~10등급) 채무자가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프로그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